



◆ 은둔의 사상가, 양주(楊朱)
중국 전국 시대 초기 사상가로서 '자신을 중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강조함. 맹자는 양주 사상을 '위아(爲我)주의'로 규정하고 그를 "터럭 한 올을 뽑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라며 비판함

◆ 주례(周禮)
인문 도덕과 정치적 · 사회적 질서를 강조한 주나라의 문화. 유교는 주례를 따를 것을 강조한 반면, 노자는 주례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난다고 봄

◆ 노자의 도(道)
"도는 말하게 되면 참다운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 불린 이름은 언제나 변함없는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 노자, "도덕경" -

개념 Check

- () 사상은 인위적 문명을 비판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말한다.
- 유교에서는 인의(仁義)와 예(禮) 같은 도덕규범을 중시하지만, ()에서는 이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본다.
- 노자는 ()을/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변화 법칙으로 보았다.

정답 1. 노장
2. 도가
3. 도(道)

1. 도가 사상의 연원과 전개

(1) 도가 사상의 연원

- 은둔의 사상: 생명 보존을 중시하고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의 최소화를 강조함. 일종의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표방함. 대표적 사상가 → 양주
- 노장(老莊)사상: 인위적인 문명을 비판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
- 유교와 도가의 비교 17학년도 쉼터

유교	도가
- 인간에 의한 문명 추구 → 인문주의 - 주례(周禮)에 근거한 삶을 추구함 - 인의(仁義), 예악(禮樂) 등의 도덕규범을 중시함 - 대표자: 공자, 맹자, 순자	- 인위적 문명 거부 → 자연주의 - 주례를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 - 인위적 규범이 사회 혼란의 한 원인이라고 봄 - 대표자: 노자, 장자

자료 플러스 인위적 규범에 대한 노자의 관점

• 큰 도[大道]가 무너지자 인(仁)과 의(義)가 생겨났다. 지혜가 생겨나면서 큰 거짓이 존재하게 되었다. 집안 사람들[六親]이 화목하지 않게 되자 효도와 자애가 생겨났다. 국가가 어지러워지자 충신이 생겨났다.
•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 생겨났고, 덕을 잃은 후에 인(仁)이 생겨났고, 인을 잃은 후에 의(義)가 생겨났고, 의를 잃은 후에 예(禮)가 생겨났다. 예는 진실[忠]과 신의[信]이 떨어지면서 생겨난 것으로서 혼란의 시초이다.

인역을 버리면 오히려 백성이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가(X)

- 노자, "도덕경" -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가 사라지자 인의(仁義)나 예(禮)와 같은 인위적 규범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유교에서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 반면, 노자는 이러한 인의나 예와 같은 인위적 규범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며 사람들의 타고난 소박한 본성을 해친다고 보면서 무위자연의 도에 따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15"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 (유가: 도가 모두 이)

16" 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유가: 도가 모두 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유가: 도가 모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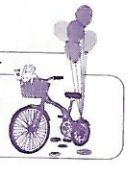
(2) 노자의 윤리 사상 17" 현자를 숭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 0, 도가 X)

①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극복 방안 누구나 좌망을 통해 도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률 33%)

원인	-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
극복 방안	- 소박하고 순수한 인간의 덕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실현 -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無爲] 안 되는 것이 없다[無不爲]는 무위의 정치 추구

② 도(道)의 의미와 특징

의미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
특징	-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는 것 -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 - 개념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



정립. 법칙이라니 도가랑 안 어울릴 듯 해도...

- ③ 도(道)의 작용: '되돌아감[反]'이 **도의** 참다운 **운행 법칙**임. 만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발전하고,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감

1706 도를 움직임과 작용이 없는 만물의 법칙으로 보자(X)

자료 플러스 노자의 도(道)의 작용과 되돌아감[反, 復]

- 내 그 이름을 알 길이 없어 글자를 붙여 도(道)라고 부르거니와, 굳이 말하자면 크대[大]고 하겠다. 크면 어디에나 가며[逝] 어디에나 가면 멀어지고[遠], 멀어지면 되돌아오게[反] 된다.
- 비우기[虛]를 지극함에 이르게 하고, 고요하기[靜]를 독실하게 지켜서 만물이 다 같이 생장할 때에 나는 근원으로 되돌아감[復]을 본다. 만물이 번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각각 그들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뿌리로 되돌아가면 고요하다고 하니 고요함. 이것이 운명[命]을 따라 되돌아가는 것이다.

- 노자, "도덕경" -

노자는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작용**이라고 보았으며, 사람들도 바로 도의 '되돌아감'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虛)와 정(靜)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이상적인 삶과 이상 사회

이상적 삶의 원리	• 무위자연(無爲自然):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 상선약수(上善若水): 으뜸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 →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임. 물이 갖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봄
이상 사회의 모습	소국 과민(小國寡民):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 사회
이상적인 정치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음

1910. 인성을 그대로 따라야 좋은 통치임을 부정하고 있다. (노자 → 공자)
인위규범을 버리고 덕으로 다스려야 함을 부정하고 있다.

자료 플러스 노자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정치

-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면 부릴수록 사악한 일이 연속해 일어나고, 법령이 선포되면 될수록 도둑이 더욱 들끓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무위(無爲)하니 백성은 스스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부러 행하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스스로 다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박하게 된다.
- 현자(賢者)를 높이 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게 할 것이며,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적질하지 않게 해야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해야 한다. 성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부드럽게 하고 빠는 튼튼하게 해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도 없고 탐욕도 없게 하며,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허튼짓을 못하게 다스린다. 무위로써 일을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노자, "도덕경" -

노자는 규제, 이기(利器), 기교, 법령 등을 단지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도둑마져 들끓게 하는 불필요한 격식이나 도구라고 보았다. 노자는 통치자가 세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뀔 보겠다는 욕심을 버릴 때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어 바르게 되고 부유해지며 순박해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성인이 현자나 제화, 욕심낼 만한 것들을 숭상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욕심과 분별적 지식을 갖지 않게 되며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정치를 '무위의 정치[無爲之治]'라고 할 수 있고, 무위의 정치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무위자연(無爲自然)

- 무위(無爲):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본성과 어긋나지 않고 자연의 법칙과 본성에 순응하는 것
-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 작위나 억지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

◆ 겸허(謙虛)와 부쟁(不爭)

'낮은 곳에 처한다.'는 겸허와 '다투지 않는다.'는 부쟁은 물이 차지 않는 덕이자 노자가 중시한 대표적인 덕목임

개념 Check

1. 노자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됨에 맡기는' ()의 삶을 제시하였다.
2.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물이 가진 ()와/과 ()의 덕을 강조하였다.
3. 노자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정답 1. 무위자연
2. 겸허, 부쟁
3. 소국 과민